

서평: 마르셀 모스, 『증여론』, 한길사, 2002

##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김 현 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자신의 집을 내방한 남성 방문객에게 가장 극진한 환대의 표시로 아내나 딸을 손님과 동침하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1960년에 개봉된 영화 「The Savage Innocents」에서 현대인들의 눈에 사뭇 야만스러워 보이는 이런 손님 접대 방식이 살인의 비극을 초래한다. 에스키모인 이누크(앤서니 퀸)은 어느 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거처를 방문한 사제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한다. 냄새에 거부감을 느낀 사제가 음식을 사양하자, 상대방이 더 나은 환대를 원하는 것이라 생각한 이누크는 이어서 자신의 아내를 제공한다. 그러자 사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극구 사양한다. 음식과 아내, 두 번의 선물 거절에 모욕감을 느낀 이누크가 사제를 벽으로 밀어붙여 심하게 흔들어대니, 벽에 부딪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그는 그만 죽고 만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신에게 장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단으로 데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헤카톰베라 불렀다. 황소 백 마리를 불에 태워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어른들이

쌀 사러 가면서 종종 쌀 팔러 간다고 말하곤 했다. 혼례의 예물이 든 함을 등에 진 채 얼굴에는 오징어 가면을 쓰고 손에는 청사초롱을 든 함잡이들, 그들은 동네 어귀에서부터 “함 사러”를 외치며 신부의 집을 향해 가지만 쉽사리 함을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았다. 땅바닥에 돈을 깔아 놓아야 그 돈을 밟으며 겨우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떼곤 했다.

에스키모인들은 왜 자신의 아내를 손님에게 선물로 제공하며, 선물을 사양하는 것에 대해 왜 그토록 심한 모욕감을 느낄까?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 했을까? 흔히 인신공희라는 일반적인 고대 풍속으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고대에는 왜 산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을까? 아무리 제우스가 최고 신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황소를 100마리씩이나 불에 태웠을까? 왜 물건을 사러 가면서 팔러 간다고 표현했으며, 왜 함잡이들은 귀한 돈을 손으로 받지 않고 발로 밟았을까?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증여론』을 읽으면서 이처럼 기이해 보이는 이방의 풍속이나 태고의 관습들뿐 아니라 의아스럽게 느껴졌던 유년기의 많은 기억들이 설 새 없이 떠오르며 머리가 끄덕여졌다. 원시사회와 고대 문명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형태와 성격, 방식 및 사회적 기능들을 천착한 모스의 『증여론』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선물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과 그 근거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은 개연성이 높은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증여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들을 풀어보자.

모스는 구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폴리네시아 및 북서아메리카의 몇몇 부족 사회들, 이른바 원시사회들과 고대 로마, 인도, 그리고 게르만 사회의 여러 집단들 사이의 계약 법규와 경제적 급부체계를 탐구했다. 계약과 교환에 대한 연구임에도 원 제목을 “증여에 관한 시론 Essai sur

le don”(영역 본은 『The Gift』)으로 정한 까닭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그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들 사회에서 교환과 계약이 선물의 형태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물 교환은 “겉으로는 자유롭고 무상(無償)으로 보여 자발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제적이며 타산적” 성격을 띤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를 통해 모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증여, 기부, 선물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don”이라는 용어가 이 사회들에서 계약·교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기본 원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거론하겠지만, 이 원리는 현대의 상거래법과 금융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유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람들은 물건이나 돈으로 주기도, 때로 재능이나 노동으로 주기도 한다. 어떤 경우건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즉 선물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다. 대가를 기대하거나 잘못을 덮어주기를 바라며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뇌물, 돌잔치나 결혼 등에서의 선물은 예물, 신이나 죽은 조상에게 바치는 선물은 제물, 공물, 혹은 봉헌물, 혈족에게 유산으로 주는 선물은 증여 혹은 양도, 가진 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선물은 기부, 감사나 존경의 표시로 주는 자발적 선물은 그냥 선물이라 칭한다. 마지막 두 경우의 선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대가나 답례를 기대하는 선물들이므로 급부라 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물들은 그 유형에 따라 법적·경제적·종교적·도덕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사회 및 전근대 사회건 현대 사회건 다양한 형태의 선물들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총체적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 1. 선물의 원시 형태들 : 조상이나 신들 간의 거래와 계약

모스는 『증여론』의 서두에서 “총체적 사회 현상”(phénomène sociale tota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뒤르케임을 선구로 한 프랑스 사회학파의 학자들은 사회학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총체적 사회 현상”,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fait social total)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증여론』에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와는 다른 맥락에서 거론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증여론』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선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표현들이 『증여론』의 연구 대상의 일부를 이루는 원시 사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이 ‘원시’라 부르는 사회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로, 일반적으로 각 부족은 학자에 따라 포족(胞族, phratric) 혹은 반족(moitié)이라 부르는 두 집단으로 분할되어 있다. 각 포족(혹은 반족)은 또 저마다 서로 다른 토템을 가진 몇몇 토템동족들로 나뉘어 있으므로, 원시사회는 이른바 토템 집단들로 구성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이 사회는 촌락, 읍, 도시들로 구성된 사회들에 비해 사회조직들이 미분화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덜 분화되어 있어서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뒤섞여 혼동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원시사회에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사실 속에 “종교제도, 법제도, 정치제도이자 동시에 가족제도인 도덕제도, 생산과 소비, 더 정확히 말해서 급부와 분배의 특수한 형식을 전제로 하는 경제제도”가 동시에 또 일거에 나타난다.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total”이 “전체적”으로 번역되었으나, 전체적이라는 말은 전부, 총합을 연상시킨다.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회적 사실은 개별적 존재들이 드러내는 개성들의 합이 아니라 그 자체

로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프랑스 사회학파의 기본 인식이다. 그래서 ‘전체적’이라는 번역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모스의 사상을 곡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하나의 사회 현상은 삶의 다양한 지평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 복합체의 성격을 띠지만, 특히 원시사회에서는 상이한 지평들이 구별되지 않고 혼동되어 있으므로 “total”을 “총체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계약·교환의 가장 원시적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사회에서 모든 사회 현상은 총체성을 띠는 특징 외에 몇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사전 지식들이 있다.

현대인들은 개인이 화폐나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람에 관한 것이나 사물에 관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 규정들을 적용한다. 그러나 원시사회에서 교환과 계약은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족들 사이에서 또는 토렘족이나 하위토렘족과 같은 집단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과 자연물 및 인공물들, 때로는 우주 구성물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만물 전체가 특정 포족들, 따라서 토렘족들에게 분배되며, 동일 토렘족에 속한 사람과 사물들은 같은 토렘 이름을 갖는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존재들은 어느 정도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시사회에서는 현대의 계약 용어로 표현하면 대인법과 대물법의 구별이 없다. 또 토렘 명은 집단을 표현하는 이름이므로, 비록 거래나 계약이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인 개인은 늘 집단을 대변한다.

그런데 원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토렘은 죽은 조상들이나 신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야 할 최우선 대상은 다름 아닌 죽은 조상들과 신들이다. 그래서 『증여론』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교환 체계뿐 아니라 신과 인간들 사이의 계약·교환 체계까지 포함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

시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의 모든 계약은 조상이나 신들 사이의 계약이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조상들이나 신들로부터 구매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 2. 총체적 급부체계로서의 포틀래치

원시사회라 할지라도 사회에 따라, 또 특정 사회 내에서도 선물의 유형은 다양하다. 문자 그대로 “총체적 급부 체계”(le système des prestation totale)란 경제적·법적·도덕적·종교적 복합체로서의 선물뿐 아니라, 부와 재화의 교환이라는 사회적 관행이 행해지는 작동 방식과 그 본질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선물 유형을 가리킨다. 모스는 북서아메리카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두 포족의 동맹에서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발견했다. 바로 포틀래치(potlach)가 그것이다. 포틀래치는 원래 밴쿠버에서 알래스카에 걸쳐 사는 백인과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식사를 제공한다’ 또는 ‘소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방언이다. 주로 겨울 축제 기간 동안 행해지는 포틀래치에서 두 포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존경을 표하며 상대방에게 음식과 선물들을 후하게 제공하며 시작하지만, 종종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축적된 부를 아낌없이 파괴해버리기까지 하면서 극심하게 경쟁한다. 적대적 경쟁과 부의 과다한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포틀래치와 같은 급부체계는 비교적 드물게 발견되지만, 모스는 총체적 급부체계의 양상을 띠는 다른 원시사회들의 증여-교환 체계를 일반적으로 포틀래치라 칭한다.

먼저 포틀래치와 같은 총체적 급부체계로서의 부와 재화의 교환에는 세 가지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 선물은 자발적으로 단순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받기-답례하기의 과정이 권리와 의무로 간주

된다. 출생, 할례, 성년식, 결혼, 질병, 장례, 통상, 샴머니즘적 집회, 입회식 등에서 주최자는 참여자들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자들은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주어지는 선물은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되므로 선물을 받을 의무도 있다. 또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특정 기한 내에 반드시 답례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는 포틀래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시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선물에 대해 암묵적으로 규정된 관행으로, 제공-수령-답례는 증여-교환 체계의 기본 요소이다. 주기를 거부하는 것, 접대를 소홀히 하는 것, 제공된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모두 위신과 권위,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상대에게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호적 관계, 영적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에스키모인 이누크가 제공한 두 종류의 선물 제공을 거부한 사제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이누크의 집을 방문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상대방에게 영적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이누크가 격분하여 사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의 위신과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적이 되기를 공공연히 선포한 사제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여기서 의문이 든다. 교역·교환관계에서의 선물이 아닌데도 왜 주고 받고 답례하는 과정이 모두 빠뜨릴 수 없는 의무로 간주될까? 모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물과 사람에 대해 원시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 제공-수령-답례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간주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원시사회의 구성원들은 동일 씨족이나 포족에 속하는 사물들과 개인 및 집단 사이에는 영적 유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토템 명을 가진 모든 물건과 사람은 동일한 죽은 조상이나 신들에게서 유래했으며,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가지

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이 영적 요소는 마나(뉴질랜드, 폴리네시아), 하우(마오리족) 등으로 다르게 불리지만, 결국 받은 선물 속에는 선물 제공자의 권위, 위세, 정신적 본질 및 영혼의 일부가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선물을 받은 자는 향연이나 축제, 또는 선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유 재산, 소유물, 노동, 상품 등으로 증여자에게 답례할 때까지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선물에 내재해 있는 마나나 하우가 그것을 소지한 자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혹여 앙심이라도 품게 되면, 선물에 내재되어 있던 증여자의 마나의 요소들이 작용하여 자신의 부의 원천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답례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주술적·종교적 영향력 아래 두어야만 자신이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이 상대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주기-받기-답례하기의 순환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본질적 요소 외에도, 포틀래치에는 과다한 부의 소비와 파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포틀래치에서 볼 수 있는 부의 소비와 과시는 일부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경제력의 과시 및 무절제한 낭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증여론』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진수성찬이나 귀중품이 아니라 하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나 아내를 제공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환대의 표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에스키모인들의 풍습과 더불어 서두에서 제기한 다른 의문들을 해소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3. 아낌없는 주는 선물은 명예, 권위, 부, 평화를 가져다준다.

트로브리안드섬의 원주민들이 “쿨라”(kular)라 부르는 교역 체계는 부족들 사이에서, 또 부족 내의 반족이나 씨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



종의 거대한 포틀래치다. 그들은 집요하게 흥정을 해서 상품들을 교환하는 단순한 경제적 교환은 쿨라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김왈리(gimwali)라 부른다. 쿨라에는 김왈리를 지배하는 유용성과 이익의 동기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쿨라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구체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들은 동일하다. 북서 아메리카의 포틀래치와 마찬가지로 쿨라에서 교역 당사자들은 후한 인심과 자율성,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전력을 다 한다. 모든 부족에게 속한 사물들은 언제나 영적 요소와 성질을 가지고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선물의 양과 질은 그만큼의 법적, 종교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위 및 명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접적 이득만을 추구하거나 쪼뼛하게 제공·답례하는 것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후하게 분배되는 부는 후한 재분배로 이어져야 한다. 마지못해 겨우 생색만 내는 교역이나 선물 교환은 곧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자 부의 순환을 막는 행위이며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가진 자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위계의 서열이 낮음을 인정하는 행위 또는 패배를 자백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상대의 위세와 권위를 폄훼하는 행위, 자신이 무적의 지배자임을 선포하는 것, 아니면 부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선물 교환의 목적은 도덕적이며, 그것은 두 당사자들 사이에 우호적 감정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환·교역에서도 이익보다는 명예가 중시된다.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은 호혜적이라 상대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부와 명예, 평화를 가져다준다. 최고의 동맹을 맺고 싶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싶으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희사(喜捨)하면 된다. 남자 손님에게는 딸이나 아내를, 야훼 신에게는 장자를,

제우스신에게는 황소 백 마리를. 혼인은 가장 강력한 동맹을 나타내는 일종의 피의 동맹이다. 따라서 모계혈통 제도를 채택한 원시사회들에서 남성 방문객을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것은 그 손님을 가장 강력한 동맹자로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부의 파괴 관습은 적대적 경쟁인 전쟁과 공희(供犧)라는 두 동기가 있다. 신에게 장자를 제물로 바치거나 황소 백 마리를 불태우는 것은 포틀래치에서 행해지는 과도한 부의 소비와 파괴라는 두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희에 해당된다. 원시사회 구성원들에게 모든 것이 죽은 조상이나 신들에게서 나왔으므로 파괴된 물건은 이들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나 물건, 재화를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자 그들에게 호의를 구하는 일종의 계약, 보험 같은 것이다.

#### 4. 죽은 조상이나 신들은 작은 것을 받고 큰 것을 되돌려준다

원시적 인간관과 물질관에 따르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나 신, 혹은 신으로 간주되는 자연을 염두에 둔 증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을 향한 직접적 증여와 간접적인 증여는 그 효과가 같지 않다. 소중한 부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파괴하는 “공희는 계약제도를 최고도로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동북단의 추크치족과 코랴크족, 그리고 그 이웃의 에스키모 유이트족은 장기간의 감사제(Thanksgiving Ceremony) 동안에 의무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선물의 증여와 교환을 가장 많이 행한다. 축제의 향연 때 먹다 남은 것들은 바다에 던지거나 바람에 날려 보낸다. 그렇게 해야 “그것들이 죽은 사냥거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음 해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들은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

라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며, 또 이익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례한다.

게다가 신적 존재들이 가진 강력한 주술·종교적 위세는 미래의 재앙을 막아줄 수도 있다. 축제나 의식에서 샤먼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은 그 가면이 표상하는 신에 빙의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춤으로 마음이 풀리고 흥겨워진 신은 춤을 선물한 증여자의 죄를 사해 주거나 재앙을 막아준다. 10개의 다리를 가진 오징어 가면을 쓴 함쟁이들은 결혼의 신을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스는 중국에서 결혼식 때 행진하면서 돈을 던지는 것, 심지어 신부의 지참금까지 결혼의 신에게 선물로 바침으로써 나쁜 영향력을 예방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이런 해석을 수용한다면, 신부의 가족들이 함쟁이의 발걸음 앞에 돈을 놓아 밟고 지나가게 했던 우리의 옛 관행은 신과 흥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한 선물을 받은 결혼의 신이 답례로 재앙을 막아주어 다산(10명의 자식들)을 보증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품고서, 트로이전쟁의 신화적 원인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물의 정령 테티스의 결혼식에 신들 가운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이 초대받지 못했다. 원한을 품은 테티스 여신은 불청객으로 결혼 피로연에 참석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아내 헤라,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나, 미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갈등은 곧 통치권과 무력, 그리고 부의 상징인 다산 사이의 위세 싸움이다. 에리스 여신을 분노하게 한 결과는 10년이나 지속된 전쟁이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이 세 여신의 갈등으로 인해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되고, 그로 인해 트로이전쟁이 발발했다고 이야기한다. 실추된 명예, 접대의 거절, 즉 분배되지 않는 부는 결속력의 약화, 사회의 와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귀중품을 증여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것,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되돌

려 받는 것이므로 원시사회에서 매수와 매도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멜라네시아 부족들은 활발한 국외 교역과 고도로 발달된 교환체계를 가졌으나, 구입과 판매, 대여와 차용이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다. 게르만 법 역시 경제적·법률적 개념들을 추상하여 구분하지 않았다. 모스는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주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주면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답례를 받게 되므로 매도와 매수는 모두 주는 것,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쌀을 사러 가면서 쌀 팔러 간다고 표현했던 것은 태고적 증여원리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였을까? 어쨌든 교역·교환 관계에서는 유용성과 이득, 경쟁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와 신용, 우호적 교류이다. 로마의 12동판법, 힌두교의 경전, 게르만의 상거래법을 세밀히 검토한 후, 모스는 총체적 급부체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 원시사회가 아닌 보다 분화된 조직을 가진 문명사회의 법과 경제 속에서도 원시적 증여·교환의 모든 원리들의 중요한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힌두교 경전은 곳곳에서 원시 형태의 증여-교환 체계의 원리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다. 선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생하는 것이며, 물건을 주면 그 보답은 이승에서도 또 저승에서도 이루어진다. 탐욕은 법과 선행 및 영원히 서로 재생하는 음식물의 순환, 부의 순환을 폐색한다. 현세에서 대중들에게 공덕을 베풀면 내세에서 붓다가 된다는 대승불교의 보시(普施) 개념, 즉 타인에게 공덕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행위라는 불교의 구원에 관한 이 교리는 회사와 헌신을 담보로 하고 최고로 되돌려 받는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모스는 보시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증여와 행운에 관한 도덕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제에서의 공희(供犧)관의 결과물이라 보았다.

“군자는 의를 얻으려 노심초사하고 소인은 이익을 얻으려 노심초사한

다.”(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고 공자는 말했다.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며 대동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공자, 행복과 행운을 획득하는 비결은 행운을 나누어주는 것임을 역설하며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증여의 법(dana-dharma)을 적용했던 익명의 브라흐만, 부의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서 신뢰와 명예를 얻어야만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 부가 유지될 수 있었음을 깨달은 원시사회의 지혜롭고 헌신적인 어떤 추장들. 이들은 모두 특권층이 탐욕에 빠지지 않고 부와 권력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희사하게 함으로써 갖지 못한 자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고 통합시켜 더불어 살만한 평화로운 환경, 비록 모두가 부유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행복하고 선량하게 살 수 있는 ‘공정사회’의 반석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선구자들이다.

“선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부과된 평화 속에, 공공(公共)을 위한 노동과 개인을 위한 노동이 교대로 일어나는 리듬 속에, 또한 축적된 다음 재분배되는 부 속에 그리고 교육이 가르치는 서로간의 존경과 주고받는 후함 속에 있다.” 『증여론』을 통해 모스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탐욕의 신에게 빙의된 금융인들은 ‘여러분! 부자되세요’라고 외치며 우리의 부를 갈취한다. 그러나 저 멀리서 누군가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아낌없이 베풀고 신과 자연을 경외하세요. 당신이 베푸는 것보다 훨씬 많고 소중한 어떤 것을 얻게 될 거예요’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에 있는 ‘사회연구소’(Institut für Sozialforschung)는 비판 이론이라는 지적 전통을 확립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산실이다. 이곳에서 매해 두 번씩 발간되는 기관지가 “베스텐트”(WestEnd)인데, 2010-2011판에서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 관한 특집이 마련되었다. 20세기 초반 그가 해결하고자 애썼던 문제들과 그 대안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사회연구소의 책임자들이 판

단했기 했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말했다. “마르셀 모스의 가르침 만큼 비의(秘義)적인 가르침을 준 것은 거의 없었으며, 동시에 그만큼 깊은 영향력을 끼친 이도 거의 없었다”고. 모스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대에도 모든 분야의 학자들에게 새로운 탐구의 장을 열어주고 창조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페가수스의 샘이다. 그는 프랑스 사회당의 당원이 되어 당대의 문화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그 질곡들을 치유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또 그는 야만으로 간주되었던 태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해안을 파악할 줄 아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모스는 너그러웠으며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의 제자들은 말하곤 했다. 모스의 영향력과 통찰력은 참여하는 지식인, 그리고 이른바 비문명 민족들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리라.